

# 불황타개를 위한 사육량 감축방안

-사육,부화장 공동분담 입식량 20%줄여야-

박원서 부곡농장대표

## 1. 서언

오리업계에 몸담은지 2학년의 초년생으로 오리사육에 대한 기초지식을 조금은 알 것 같은 나이이다.

그러나 최근 몰아친 가격 하락이란 거센 바람이 몸을 스칠 때 각오한 시련이었음에도 힘이 부친다는게 솔직한 심정이다.

특히 가격하락이후 업계 종사자들이 자구책마련에 힘을 모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그 바람은 더욱 거센 한파로 전 오리업계를 초토화시킬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더욱 아파온다.

이같은 시점에서 내가 처한 한풀이를 하고자함은 아니며 제법 전업규모로 오리를 사육하는 업계 종사자의 한사람으로 현재 처한 오리업계의 불황극복에 대한 차구책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함이다.

## 2. 불황극복에 너는너 너는나는 없다.

흔히 오리업계가 처한 현재의 불황상황을 놓고 유통업자간, 또는 부화장, 사육농가간, 사업규모 또는 이해상관

에 따른 책임공방이 떠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항간에는 지금 오리업계가 처한 현실을 놓고 자본력있고 능력있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나 역시 이같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오리업계의 불황이 1년간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막말로 얘기하면 갈때까지 가보자는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같은 대책은 대책이랄 수 없으며 이에따른 희생 또한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리업계가 당면한 작금의 현실은 부화장과 사육농가 유통업자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너와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리업계의 출혈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부화장,사육농가가 하나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생산량 감축에 사육농가, 부화장 모두가 동참하는 대안은?

현재와 같이 생산비 이하에서 거래되는 육용오리 가격구조하에서 살아남을 생산농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육농가는 매월 큰폭의 적자 누적으로 머지않아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현재 오리업계의 불황이 소비는 한정된 상태에서 생산은 과잉양상을 보이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생산과잉현상이 빠른시일내에 구조조정되지 못하면 부화장, 사육농가등 국내 오리업계의 사육기반이 무너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의 불황을 조기에 타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산량을 감축하는 일이다.

생산량 감축의 하나의 방안으로 나는 부화장과 사육농가가 동시에 출혈을 감수하는 방법을 제안코자 한다.

즉 부화장과 사육농가의 합의하에 전 오리업계가 현재 입식하는 물량의 10%씩을 부화장과 사육농가가 분담하여 새끼오리를 폐기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만일 1천수의 오리를 입식하는 농가의 경우 부화장으로부터 9백수의 새끼오리를 받아 1백수를 폐기한 8백수를 입식하고 부화장 역시 1백수의 새끼오리를 폐기하여 입식량의 20%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화장내에 구덩이를 파고 새끼오리 분양시 사육농가의 입회하에 20%의 새끼오리를 폐기하면 쌍방간에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방법의 전제조건은 사육업계 모든 부화장과 사육농가가 참여해야 단시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육업계 전체적인 동참이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솔선하는 부화장이 있으므로해서 업계 전체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식있는 사육농가 부화장의 실천을 촉구한다.

또 이 같은 사육량 감축은 부화장이나 사육농가 모두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크게보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부화장은 남는새끼를 덩핑으로 판매하는 경우 적자폭이 커지면서도 사육량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또 정상적으로 오리를 입식하는 농가에는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케하는 악순환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또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45-50일령까지 키워 적자폭을 크게 하는 것 보다 새끼때 적자 보는 것이 경영상 더 유리하고 가격회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사육농가와 부화장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뭉친다면 가장 빠르게 불황을 타개하는 방법이라 생각되어 업계의 동의를 구하는 바이다.